

새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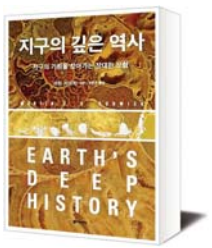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박시영·김계환 지음)=두 저자는 선거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위너가 되려면 타인의 마음을 읽고, 얻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표인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그 민심을 수렴할 유력 후보들의 인물 분석과 전망도 내놓았다. 김영서, 1만6500원.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학산대원 대종사 지음)=책은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큰스님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펼친 법문은 물론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설한 수많은 법문 중 31꼭지가 선별돼 담겼다. 불광출판사, 2만9000원.



▶지구의 깊은 역사(마틴 러드워지 지음, 김준수 옮김)=오랜 시간 지구과학의 역사를 연구해온 원로 학자인 저자는 지구과학사에 대한 오랜 탐구의 결실을 이 책에 아낌없이 담았다. 역사는 후기에서 “이 책은 최신의 지구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지구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견되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동아사이, 2만원.



▶별게 다 행복합니다(영로진 지음)=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행복을 묻는다. 저자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있던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행복은 더 이상 발견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발명해 '별게 다 행복한 삶'을 찾자는 것이다. 마음의숲, 1만4000원.



▶윤스타의 인생 사진관(윤석주 지음)=개그맨에서 제주 사진작가로,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저자. 책은 그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한 제주의 삶과 철학이 곳곳에 담긴 사진 에세이다. 3장 '제주를 품다'에는 삶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는 제주에 보내는 그의 벅찬 시선이 담겨 있다. 도트북, 2만5000원.



▶보리 초등 국어 바로쓰기 사전(남영신 지음)=국어를 어렵게 맞게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다. 저자는 초·중등학생들이 우리말을 바르고 품위 있게 쓸 수 있도록, 낱말의 뜻과 활용을 제대로 알고 어렵게 맞게 쓸 수 있도록 돕고자 사전을 엮었다. 쓰임새가 많은 기초 어휘를 대상으로 삼아 어린이들이 국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어휘를 올림말로 뽑았다. 보리, 6만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나이 오십 이후 U자 모양 행복 곡선 그린다

라우시의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경제학 등 연구성과 토대 교육·연금 제도 바뀌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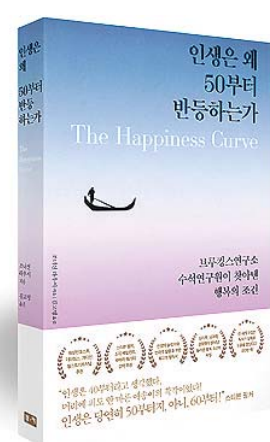
“미안해요, 늙어서 깜빡깜빡해요.” 어쩌다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린(중년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다. 나이가 부끄러운 것처럼 행동하고 생일이 나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말한다. 미국에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형성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일찍부터 주입된 고정 관념은 썩은 씨앗처럼 우리 몸을 전파하면서 고정 관념을 진실로 만들어 버리는 식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디에틀렉트' 객원 작가인 조너선 라우시는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에서 그 같은 고정 관념의 해약을 풀어헤친다. 그 역시

여행 중 어느 호텔에 들어갔을 때 70대로 보이는 프런트 직원이 자신을 맞이하자 '이야, 저 나이에 대단하시네'라고 생각했던 일화를 털어 놓으면서 뺏속까지 스민 통념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짚으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다.

표제에서 짐작하듯, 이 책은 “인생 40대에 최저점을 찍고 나이들수록, 특히 50이후에 반등하는 U자 모양 행복 곡선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결론으로 향해 간다. 청춘은 최고의 시절이고 중년은 위기의 시간이며 노년은 슬픔과 상실의 시대라는 뿌리깊은 인식과는 정반대이다.

이 같은 답에 도달하기 위해 저자는 최근 20년간 경제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신경과학, 정신의학, 사회학 등에서 이뤄진 최신 연구 성과를 살피고 각 분야 석학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중년 이상의 성인 약 300명에게 10년 단위로 인생 만족



도를 평가하는 설문 조사도 벌였다. 저자는 중년에 대한 편견을 중년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과 연금 제도가 1단계인 사람은 교육을, 3단계는 연금을 받고 2단계인 생산 연령은 1단계와 3단계에 돈을 대는 '3단계 모델'에 여전히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인이 후반이 일손을 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재창조와 재조정의 시기라는 사실이 상식이 된다면 50세에 보는 인생이 너무나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고영 옮김. 부키, 1만8000원. 전선희기자

그 시절 초상조각은 왜 굳어있는 표정일까

양정무 미술 에세이 '벌거벗은 미술관'

약 300쪽에 이르는 책장을 넘기며 군데군데 놓인 작품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미술관에 있는 기분이 빠질 듯 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인 양정무의 미술 에세이 '벌거벗은 미술관'이다. 유학 시절 미술관, 박물관 가이드를 재미있게 하는 학생으로 유명세를 탔던 저자는 이 책에서 '반전'이 있는 미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생명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가 있듯이 아름다운 미술에도 그늘이 함께 한다는 그는 고전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은 문명의 표정이 될 수 있는가, 미술관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그 안에 깃든 영욕의 인류사를 살폈다.

그는 그리스 남성 조각들이 보여주는 육체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이 그리스미술의 어두운 면이라고 짚었

다. 저자는 적지 않은 단독 조각상들이 전사자를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 고전미술의 고유한 목적은 바로 전쟁이었다고 했다. 그간 고전주의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려 했거나 간과해왔다. 초상조각 등에 드러난 표정을 통해 문명의 성격을 포착한 글에서는 고전기 그리스미술에서 로마미술까지 이어지는 무표정성이 당시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엄숙함과 진지함의 중요성을 말했다. 플라톤, 스토아철학으로 대변되는 금욕주의가 이러한 양식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시대정신이 감싸 안는 시기에도 그 틈을 미끄러져나가는 존재들이 있다. 저자는 신을 중심으로 세계의 의미가 규정되었던 중에도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얼굴들이 있었음을 놓치지 않는다. 박물관이 걸어온 길에 제국주의



의 침탈의 역사와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려 했던 국가권력의 욕망이 투영되었다는 대목도 마주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박물관은 국가권력이 내세우고 싶은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미술과 팬데믹' 장에서는 흑사병 시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미술을 통해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 들여다봤다. 정미, 1만8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현택훈 시인의 '제주 북쪽'

제주항에서 물결치는 원도심의 기억



'제주 북쪽'에 실린 제주항 풍경. 제주시 도심 별도봉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이 섬의 북쪽에 물로 향하는 통로가 있다. 제주 관문 제주항이다. 그 항구를 통해 물자와 사람이 오갔고 주변에 형성된 원도심은 제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의 오랜 중심지였다. 이 땅의 기억을 온전히 복원하려면 먼저 바다로 가야 한다.

21세기북스 출판사가 기획한 '대한민국 도슨트' 아홉 번째 '제주 북쪽'엔 그래서 제주항이 또렷이 자리 잡고 있다. 제주항을 구심점으로 신화에서 역사까지 나른 물결을 치며 앞서 나온 '제주 동쪽'과는 또 다른 제주 이야기를 풀어냈다.

'제주 북쪽'은 현택훈 시인이 썼다. 제주시 화북2동 부부기(부록마을) 태생인 그는 '시앳아'였던 시절을 추억하며 원도심(제주시)을 가운데 놓고 동쪽의 초전읍과 구좌읍, 서쪽

애월읍과 한림읍으로 이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폐지되면서 4개 읍이 모두 '제주시'란 행정시

로 묶였지만 이들 '산북'(한라산 북쪽) 지역은 저마다 다른 색을 띤다.

'제주 북쪽의 짧은 역사'로 책장을 넘기며 '시앳아'에 시인이 고백하듯 써놓은 글이 독자들을 붙든다. 고향 집 밖거리, 제주성이 있던 흔적을 드러내는 성안, 4·3 당시 인민유격대장 이덕구가 죽은 채 걸려 있던 관덕정, 서점 우생당과 제주

서점, 지하상가, 현대극장과 동양극장, 우당도서관, 산지등대, 동문시장 부근 옥탑방, 별도천과 삼양, 아가데미극장, 곤을동 등 시인이 삶의 여정을 따라 언급한 공간들만으로 제주 북쪽의 절반을 이미 돌아본 느낌이 든다.

4·3평화공원에서 남방큰돌고래방류기념비까지 스물여덟 개 장소엔 삼성혈, 거문오름, 칠성로 등 태조, 시원(始原), 최고(最古) 등의 수식어가 따르는 곳이 적지 않다. 서문시장, 보성시장, 동문시장의 오래된 빵집, 통닭집, 손대터온 등에서 제주 식 '슬푸드'를 맛볼 수 있다. 제주의 어떤 '최초'를 말해주는 북쪽엔 4·3의 피바람도 불었다. 진아영 할머니 삶터, 이덕구 산전만이 아니라 조작 간첩 등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도련동 '수상한 집'도 4·3의 저장 안에 있다. 그것까지 놓치지 말아야 제주 북쪽을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만7000원. 전선희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운 물류센터

세워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